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읍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신춘자(여, 1944년생, 성산읍 오조리)

- 줄거리: 정월 명절에 제를 지내고 도깨빗불을 보러 다닌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도체비 봐난 말은 잇주. 아니 난 실지로 봐어.

[조사자] 실지로 봐난마씨?

[제보자] 예.

[조사자] 그 얘기 헤 줍서. 도체비 봐난 얘기.

[제보자] 구좌읍 월정리에서 섯동넨데. 옛날에 막 큰 풍선이 잇어낫주게마씨. 쏠덜 신거 강풀고 항아리 같은 거 싣경 막 파는 거예. 그런 거 헌디. 그 알에예. 우리 실지 봐어. 이제는 정월멩질에 하는 한 네시쯤에 떡국 헹 올리주마씨. 겐디 여기 이제는 그런 식을 안 현디. 우리 어릴 적에는 떡국 헤가지고 한 4시쯤에 체려가지고, 이제 제를 지내.

“이제 도깨비 보레 가자.”

이제 우리 어릴 적에 헤낫주게마씨. 거니깐 그 어릴 적에 가 보니깐, 막 불난 것처럼 헤여네. 환하게 그때는 전기불도 엊고 등도 엊고 아무것도 엊일 때주마씨. 거니깐 불이 훤허네. 막 겁난

“불 낫다. 불 낫다.”

허난. 우리 친구아이가

“거 불이냐? 도깨비 불 아니냐.”

“어떻게 도깨비 불이 저추룩 크게 나나? 가만 보게.”

여기서 한 백 메다. 한 백오십 메다 정도 됐주마씨. 그 배 잇는 데가. 우리 같이 강 구경하고 허는디. 막 펴집더다게. 그것이 영 했다그네 뭐 헌 것처럼 짹 펴지고. 짹 펴지고. 또 가만히 잇고.

[제보자] 경 헌디. 그것이 한 십분 정도 이레 갓다 배 알로도 갓다 막 우이로 갓다. 헌 건 분명해마씨. 어릴 적에 보기에.

그때가 우리 한 초등학교 한 사. 오. 육학년 때난 막 어렷주게. 육십년 전에지. 그때 그거 한 번 실지 봐수다.

- 핵심어 : 도깨비, 불, 정월멩질, 월정리, 배, 도깨빗불, 도체비, 떡국